



튼튼이어린이집

제 12 호

일천구백구십삼년 이월



▲ 1992년 12월 계룡잔치의 한장면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837-3072

권두시

휴 일 특 근

4시간 연장노동 끝에

서둘러 밥차를 타고

어둔 골목길 더듬어 방문을 들어서면 귀엽둥이 민주는 벌써 꿈나라 아기병이 되었다

일주일째 아빠 얼굴을 못보더니,

오늘 저녁엔 꼬옥 아빠를 보고 잔다고

새침 놓이 그림그리기로 잠을 쫓기에

내일은 일요일이라 아빠랑 놀러 가자고 당내 재웠다며

아내는 열게 웃는다

올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주인네는 전셋돈 200만원은 더 올려달라 하고

이번 달엔 어머니 제사가 있고

다음 달엔 명선이 결혼식이고

내년엔 우리 민주 유치원도 보내야 한다

이대로 세 문퐁이 아프지만 앓는다면

김치에 밥만 먹고 아무 일만 없다면

매주 78시간 꾸준히 베틀 나간다면

열 달 남은 300만원짜리 계는 끝낼 수 있으면만

웁븐 들어 유난히 심해진 현기증에

외줄을 타는 듯 불안하다

권두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빨간 숫자는 아빠 쉬는 날이라고

민주는 크레용으로 이번 달에 6개나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다

민주아

저 달력의 빨간 숫자는

아빠의 휴일이 아니란다

배부르고 능글있는 양반들의 휴일이지

곤히 잠든 민주아

너만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네가 손꼽아 기다리며 동그라미 쳐논

빨간 휴일날 아빠는 특근을 간다

방정음도 무거운 창백한 얼굴로

허창한 신축의 휴일을 비켜

특근을 간다

선진 소국 노동자

민주 아빠는

저임금의 윙가미에 모가치가 매여서

빨간 휴일날

누렇게 누렇게 피들은 소처럼

휴일 특근을 간다 민주아

영아들 생활속에서...

한 선화 (정훈엄마)

아이들 마음까지 속으로 헤치고 살려주는 사랑이 피부를
 깎아 베일듯 살가롭다.
 온 몸을 휘두르면서도 아픔에 살짝 스치는 기도는 바깥나
 악수하고 간다.
 손으로 열매만 에 글리는 애의음인가!
 관망이 와도 그릴이 와도 도시의 온실은, 겨울이란
 친구를 필요하고 비웃었기에 그 옛날의 몸속까지 스미러
 추위를 잊고 있었다.
 시린 시절, 시름이라 해도 스치기 싫은 무행년 그대 눈서
 밤새 내린 눈이 각층짜리 기와집과 지조방 같은 아름다운 집을
 위에 흠칠씩 입제감을 이루어 두껍게 내려 앉아 있었다.
 창이 우린 높은 기둥을 감을 하고 있었던 그로 나무를 편사각으로
 실방개에 얹어 볼수록 물러간 벽에 수북이 쌓인 눈이 바람 깃살에
 반짝여 눈을 코웃음 들수 있었으, 겨우 평그러 쓰면 눈물이
 이구 흘러내렸다.
 손끝이 얹어 들어갈듯 시려우면서도 눈동에서 각층 붙이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했다.
 커다란 꽃을 큰방머리에 걸고 찍은 색 바랜 흑백사진이 앨범에
 시작을 장식하고 있다.
 추억 속에 묻어 있던 첫 장의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살과 피를 나누어 태어난 나의 첫사랑 사랑스런 아이
 네 마음에는 지금도 나는 리레가 왔으니 마음이 따스하겠으면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기적, 배려주의가 팽배한 곳에 물들지 않고
 있는 속에서 작은 꽃빛이 있을 있는 아이.
 그리하여 아들을 가슴에 품을수 있는 커한 사랑을 일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윤리 그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자식에 관한 한 소유욕이 있으므로 감정조절이 조석변이
 이것을 자주 느낀다.
 현실은 언제나 소망보다 앞서 가기에 부족하고 일차원적인
 나의 애월에 대해 리아심은 햇빛 같고 음기같은 공평한 사랑을
 할수 있게 순간 순간 이끌어 준다.
 그 사랑 이라면 소망이 현실위에 설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가 기약때 두된 즐거움, 기대감, 부딪침, 만족감과
 그보다는 적게 섭섭함, 억울함, 때 씹힘등등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의 성장에 서는데 꼭같이 도움을 준다.
 이 후독한 바람 매쉬는 주키는 여전히 기억의 주인공
 편을 부름쓰고 있지만 매일이나 모레 꿈 다시 온후한 기류가
 될것이다.
 산다는 것은 역시 아름답다.

93. 1.
한 선화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

고영환 (재원 아빠)

뚜, 뚜...

여보세요?

아빠야? 나야 재원이야.

응! 그래 얼마아찌!

알았어, 아빠!

저녁! 전화 걸어줘서 제 편이구나.

어느덧, 6살 재전스럽다.

끈득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다.

시련한 랍시로 제대로 호강 한번 못시키고 자라온 녀석인데....

무릅잡아 떨어진 재원을 보며 무척이나 측은해 보였는데....

그래야 더욱더 노력하여 호강줄 시켜 봐야지.

하고 리킬 뻔지.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튼튼히 놀이방에 보낼지 어쩔 6개월

보내는 첫날은 놀이방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의문은 저녁때에 풀렸다. 재원의 밝게

작적은 할것 같았다.

재원아! 아빠가 너에게 하고픈 말이 있란다.

우선은 썩썩 하고, 활기찬 재원이 되셨으면 환관다.

아빠가 요즘에 보니깐, 인내력이 좀 부족하더군.

또, 이기적이기로 하고 고집은 왜 그렇게 세니?

아빠가 지적한 말은 꼭 고쳐야한단다.

또, 아빠는 재원이가 지적한 말을 꼭 고치는 착한 재원이길
원한다.

재원아!

선생님과 누나, 형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길 바란다.

아빠는 항상 재원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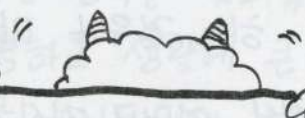
주님께 자주 기도하마.

마지막으로 밤잠이 적은 툴툴한 재원이가 되길 바란다.

—아빠로부터—



쉬어가는 마당 000000



= 어느 생애의 맨의 하루 =

나갈까 말까 - 아침출근

탈까 말까 - 출근길 택시

먹을까 말까 - 비싼 점심

들을까 말까 - 퇴근길 한잔

갈까 말까 - 마누라 이불속

술까 말까 망설였는데 (마누라 이불속) 후후~ 상상할까 말까?



공 동 복 아

-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생활형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가족제가 부부를 중심으로한 핵가족으로 변화했고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아이와 장시간 떨어져야 할 경우,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거나 친지 특히 친정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어머니 자신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일을 하고있는 어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난감을 지나치게 사준다거나,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다 들어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이나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결코 옳바르다고 할수 없다.

탁아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탁아에 대한 고간의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올바른 자녀 관계

우리는 하루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를 흔히 볼수있다.

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름하면서 생활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애지중지 하면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잘 자랄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고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순간에는 뉘새없이 반복되는 요구가 들어주면서 느끼는 피곤과 짜증, 사회에 대한 소외감, 잘 키우고 있느냐에 대한 불안과 무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잘 키우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가의 문제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에 충분히 애정을 느낄수 있는 관계라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어머니가 직장을 갖고있는 경우, 어머니가 자신이 하고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하는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높은 성취감을 갖게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들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집안일을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고정된 성역할의 차별을 없앨수 있게 된다.



2. 공동육아의 중요점

일을 시작하게 된 어머니들은 탁아소에 아이를 처음 보낼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때를 쓰고 우는 아이를 보며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차차 아이가 탁아소에 적응해
나가면서 교육적 변화를 보일때 비로써 마음이 놓이게 된다.
탁아소 생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살펴보면 탁아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언어·인지·정서·사회성·신체발달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서·사회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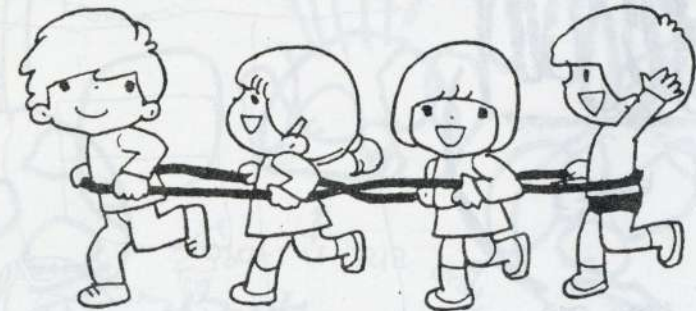
탁아소의 경험은 또래아동과 탁아교사의 애정으로 사회
정서적인 충분한 자극을 받게 된다. 다수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며 더 평강하다.
다른 또래와도 더 협력적이며, 성숙한 상호작용을 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강하여 독립적 성격이 형성된다.
또한 자기만이 아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의식이 어릴적
부터 키워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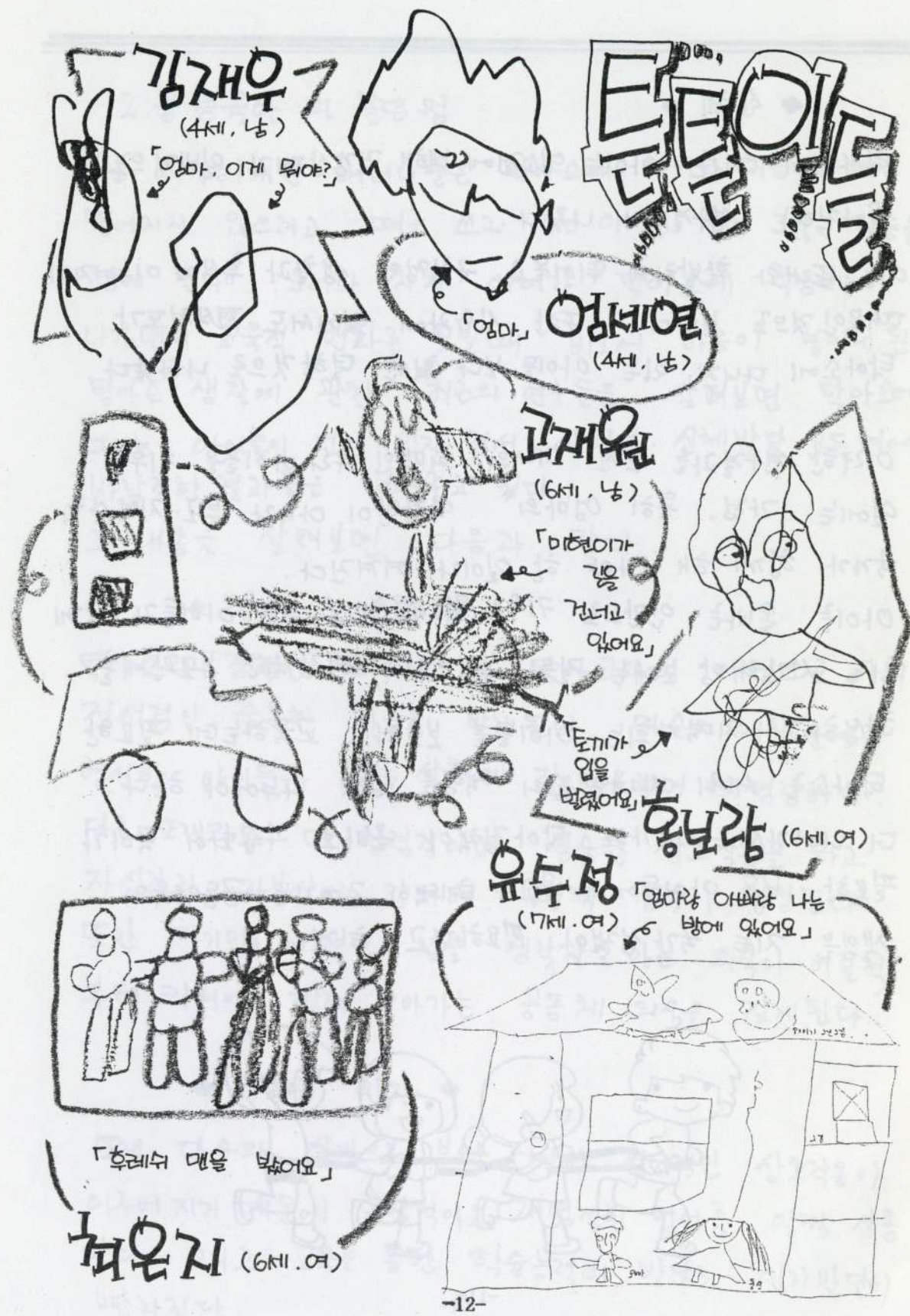
◆ 언어·인지 ◆

또래 다수와 성인으로부터 다양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를 일찍 사용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학습능력의 발달로 인지반응이
빠라진다.

◆ 신체 ◆

탁아소에 다니는 아이는 입소전에 비해 건강상태가 일반적으로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또래와 활발하게 뛰어놀고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습관에 있어서도 편식정도가
탁아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가정, 특히 엄마의 역할만이 아니라 부모·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아이를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양 보다는 질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부모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탁아소를 세워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탁아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탁아가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공동양육의
책임을 지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송년회를 보고 나서

박정순 (선애엄마)

올 망년회는 온 가족이 놀이방과 공부방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망년회를 즐기는 집에서 이사가 끝났다.

12월 28일 망년회날 우리가 오징어회를 반찬에 만들어가지고 놀이방에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 연식이 막 끝나고 있었다.

다들 다들 저용잔치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제 2부 각 조를 짜서 만일게 만들어진 음식잔치가 부채식으로 열렸다.

한양 호텔. 윤기가 지르르 흐르는 접시. 온갖 과일과 마요네즈로 잘 버무려진 요리다. 돼지고기를 곱게 잘라 양념을 넣어서 동그랗고 예쁘게 만든 빈대떡.

고기를 잘 재어서 마늘아를 만든 돼지고기 볶음, 여러가지 야채를 넣어서 빨갛게 색감을 낸 오징어회, 여기에 술이 없을수기 맥주와 소주. 음료수가 어우러져서 호박죽과 아이스크림은 없어서 일류 음식점 부채 못지 않았다.

제 3부 삼촌과 이모들이 준비한 인형극 토끼이 재밌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와 지혜로운 토끼이 재밌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기를 것이다.

제 4부 가족노래 대회가 열렸다.

모두들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음치인 나는 음순이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족 차례가 되었다. 적당히 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통이지 않았다. 선애 아빠는 내가 부를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나는 박수를 치다가 선투은 줄을 흔들었다. 관중은 나의 선투은 줄에 곡소를 휩쓸었다. 드디어 대상 발표 시간이다. 과연 누가 대상을 받을까? 지를지을이고 일는데 선애네 가족이라고 발표 되었다. 나는 얼떨결에 앞으로 뛰어 나갔다.

선애아빠는 머리통을 치고 있었다. 윌페인이 휩쓸러지고 위장병 때문에 거절했던 관도 기분 좋게 잔잔 피웠다. 결코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놀이방의 신입생으로서 대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미에서건 상을 받노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이다. 신문지가 돌러지고 돈이 거두어졌다. 그 돈은 적지만 지원봉사로 주고 한시는 삼촌 이모들에게 돌려 줄려고 그 의미를 되렷다. 이것으로 아쉬움은 내년 망년회로 미루게 막을 세웠다.

선애 엄마

엄마.
아빠
알고 있어요!



강대호 (강대현, 강미현)

1. 가족의 건강
4. 명랑하고 착하게
5. 하는 일이 즐겁길
6. 부끄러움, 게으름, 게으름, 게으름

조용녀

1. 건강
4. 밝고 꼭 필요한 사람
5. 지혜와 유익을 잘 다지고, 미행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잘 한다면
6. 물가 안정, 정치안정

황민상 (황민상)

1. 가족의 건강
2. 행복한 내 삶
3. 지난해 바빴던 일을 하고 싶을 때
4. 착하고 명랑하게
5. 나의 흥미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계사업 (유통업)
6. 물가안정, 유아부터 청소년 교육제도

강남성

1. 우리 가정의 행복
2.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시길
3. 지난해 아빠가 처음 도전한 일을
4. 건강하고 바쁘게
5. 가족의 건강, 넓은 집으로 이사
6. 물가안정, 탁아소에 해결

1. 가족의 건강

2. 가족의 건강을 내세우며 살고 아내의 의견도 들어주며 지낼 수 있는 아내의 의견을 잘 듣고 아내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임

3. 연세가 높기 때문에 집을 나와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작은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것을 배우고 싶음

4.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난을 버리고 싶음

5. 일터에서 제대로 일하는 것, 남편이 만든 가게가 잘되길

6. 물가를 안정시켜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도록 해 주시길

김민준 (최은혜 엄마)

이상금 (김재우)

김민준

1. 나의 가족 <김민준과 그의 아들>

1. 나의 가족 <김민준과 그의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2. 남편은 건강하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3. 남편은 남편을 사랑한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4.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리치드 바크의 몸매가 되고,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5. 김재우 여동생 만나는 일 <아빠를 만났던 때부터 좋게다>과 <다들 잘 지내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
6.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1. 김재우, 이상금

2. 올해는 일에 바빠서 좀 쉬고 싶다
3. 올해는 파카를 입고 버리고 새바지를 입고 싶다
4. 올해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5. 올해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6. 올해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안준환 (최은혜 엄마)

1. 가족의 건강
2.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3.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4.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5.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6.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김민준

1. 가족의 건강

2.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3.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4.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5.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6.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어른 몰라보는 사회

사회에서 일을 노정하는 60대 노인을 20대 청년들이 때려 눕히게 한
아저씨라는 말이 있었다.

사회를 몰라보는 사회가 청년들이 그 노인의 잘못을 향해 돌을 던진 뒤에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청년이 "어른에게 무슨 잘못이었나?"고
피해자 그 노인을 때리고 도망친다. 냉정한 노인을 병원으로 옮기지만 끝내 손을
그대로 댄다.

젊은 노인이 양한 것은 노년층 사람들이 오는 시장 해방이었고 더군다나 포경
마사지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시비와 무관심을 보면서 노년을 겪었다. 그런데도
에 그도 청년들이 잘못을 내지 않고 고안고 이들의 포경을 응징하려 내지
않았으니 이 사회가 정말 양반을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젊은이의 잘못과 무관심을 방관하는 사회란 양반 사회가 아니다.
버릇없는 아이나 무례한 젊은이는 가르치를 하지 않는 사회, 교육을 하지 않는
어른들 속에서 더욱 버릇없이, 방종하게 자란다. 그러하여 사회는 폭력화
무질서를 양산하는 기성사회로 전락한다.

집안의 어른이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서는 인격보다 상식을 중시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육과 분위기를
주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정말 양반 사회라는 것만
같다.

아무리 어썩어 젊은이가 노인을 때려 눕히게 한 이 사회의 민중과
기성사회를 어른들이 교양되고 양양하고 양을 사기에 귀로 배워서 봐야
들어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

1. 건강·가족
2. 재능한 남편·안락한 아버지가 되었으며...
3. 별로 없음
4. 건강하고 항상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
5. 몸이 자주 아프니까 건강해지면 좋겠다.
6. 물가 안정. 비명을 우는 형제에 맞는 옷차림

형제

1. 위키 아기
2. 평범함
3. 건강하고 지혜롭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 바람
5. 날마다 즐거운 시간들로 인생가 매워지는 것
6. 경제 안정 사회 안정

친명희

(형제남 영마)

1. 남편과 재능
2. 건강을 위해 양육도 중요
3. 양친 17개월 때 파도처럼 이별을 겪고 싸움까지 겪음
4. 옷차림을 잘 꾸민다고 남에게 배 품을 주는 그런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바빠서 바쁘거나 생생하면
5. 양친은 저세상을 떠났지만 아내에게 노년이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좋겠어요
6. 물가 안정을 해 주시면...

한선희

(이영준 영마)

1. 가족
2. 물건을 보관하여도 마음은 풍요로우
3. 없음
4. 바빠서도 귀찮게 하는 아이
5. 틈틈히 만화 보여
6. 경제 안정

고영환

(고재영)

1. 가족
2. 더 오래 건강하고 지혜롭게
3. 없음 (의견 차별로 가벼운 말다툼 정도)
4.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게 바랍니다
5. 건강하고 건강한 마음의 한해로
6. 너나 아나된 형제끼리 화를 빼고 화해하기를...

김영민

(김영민)

1. 내주변의 모든 것
2. 형제고 고집이 강하고 아내인 제 인생 좀 바꿀 해고 건강일 좀 해들어 주세요
4. 매사에 거침이 있는 아이
5. 남편 해주는 말이 잘 들려서 우리 가족 잘 사는 것
6. 경제가 안정과 물가 안정

박영숙

(박영숙)

1. 건강
2. 목에 한창
3. 남편이 바빠서 귀찮
4. 건강하고 바빠서 자라게
5.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6. 네부 가족 안정

이인재

(이인재 영마)

1. 건강
2. 웃으며 세비로
3. 가족 모두 사랑
4. 형제하고 건강하게
5. 돈이 많이 생기고
6. 물가 안정

건강방 두통에는 수지침을

하루종일 고개를 수그린채 단순반복작업을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흔한 두통, 그때마다 흔히 사용되는 약이 진통제이다. 그러나 진통제라는 것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지는데 다 중독성이 있어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여기서는 간단하면서도 후유증이 없는 수지침법을 이용한 두통치료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수지침법은 손에는 몸 전체로 통하는 경혈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몸의 각부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때 그곳에 해당하는 손의 경혈을 찾아 주무르거나 침·압봉등으로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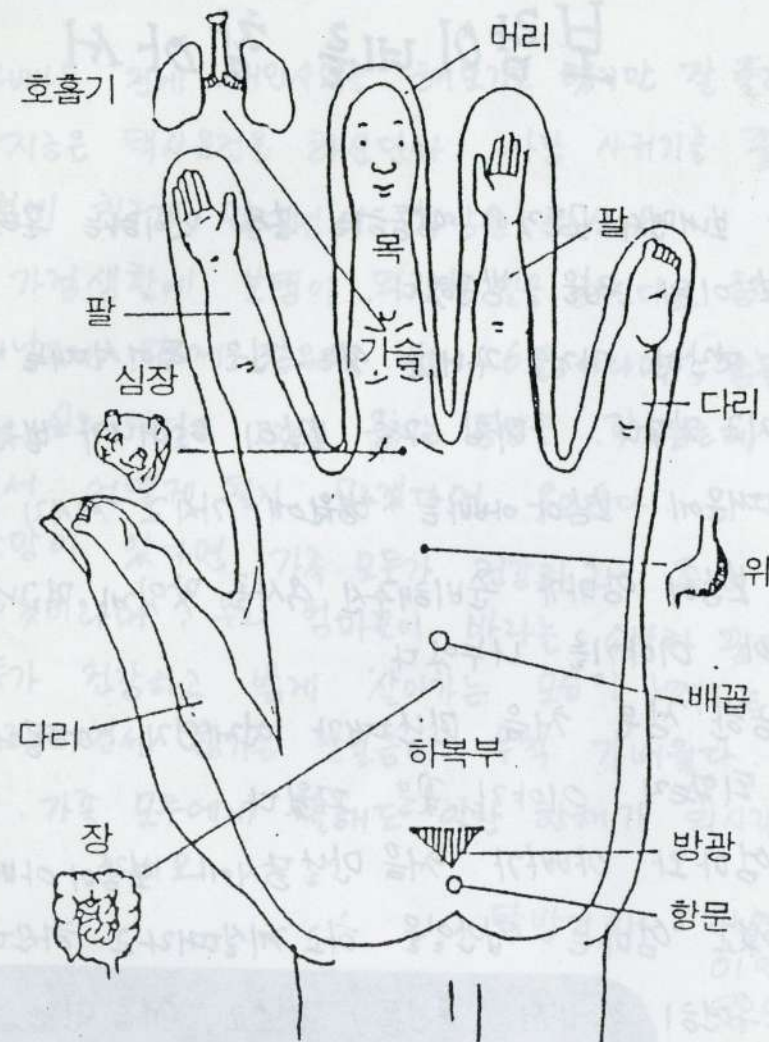
이전의 경혈중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는 양손 중지의 손톱과 첫번째 관절 사이이다.

따라서 두통이 생겼을때 이 부위를 주무르다 보면 유독 압통(눌렀을때 심하게 아픔)이 심한곳이 있다.

바로 이곳을 약 15분정도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등으로 누르거나 골고루 주물러 주면 된다.

두통의 각 증상에 따라 다음 부위를 눌러주면 좋다.

- 뒷머리가 아플때 - 양손 중지손톱이 난곳과 제1관절 사이
- 앞머리가 아플때 - 양손 중지의 손바닥쪽 지문부 상반부
- 정수리가 아플때 - 양손 중지골



두통외에도 우리가 손바닥이나 손등을 누르다보면 유독 아픈 부분이 있다. 그곳이 몸에 이상이 있을때 양수있는 곳이다. 그곳도 두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꼭꼭 눌러주거나 주물러주면 효과가 있다. 수지침은 주무르는 면적이 작아 혼자서도 간단히 치료할수 있고 부작용도 없으므로 아픈곳이 생길때, 위의 그림을 참조해서 해보면 도움이 될것이다.

보람이 네를 찾아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모든것이 악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 일행은 보람이네 집을 방문했다.

세석차가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집을 들어서면는 벌써 웅시가 가가와 지고 있었다. 마침 그날 보람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셨기 때문에 보람이 아버지는 병원에 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우리들은 보람이 엄마가 준비해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고난후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처음 만났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결혼을 하리게 되었는지 이야기 꽃을 피웠다.

보람이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날당시에 보람이 아버지는 군 복무중이셨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계실때라고 하신다.

두분은 우연히 길에서 (불천동) 만났고, 처음 만난 그날 다방에 들어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뒤 두분은 가끔 만나게 되었고 두분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결혼할때까지 다방은 한번도 간 적이 없고, 데이트장소를 술집으로 옮겨 만나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하리게 되었다.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어 결혼한후 처음에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다고 하신다. 그후 분가해서 보람이를 낳고 지금은 엄마, 아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다면서 지금 생활에 크게 불만이 없으신다.

보람이 아버지는 전에 개인사업을 해보기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하시며, 지금은 택시운전을 하신다. 사냥 사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좋아 주변에 친구가 많다면서 자랑을 하신다.

엄마는 가정생활에 보람이 되고자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람이를 낳은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6살 이라며, 남들 못지않게 잘 키우고 싶으신다. 그리고 웅해는 동생을 갖고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웃으신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좀 더 넓은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며, 우리 엄마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을 말씀하셨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지는 보람이네 집을 뒤로 하면서 옅기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다.

보람이네 가족 모두에게 올해도 알찬 한해가 되시길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탐방기자 : 하영자 (자모)
이인재 (자모)
김숙자 (선생님)





엄세이

(4세, 남)

어제 15분이면 놀이방 문이 열리며
안쪽에 선생님이가 다다다다 붙어있는
세명이가 등장해요.

아저씨를 안쪽안쪽에 앉은 안쪽에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귀염둥이랍니다. 나날이 되더니 너무
익숙해져 낯선 시간에 이별도 없고,
형, 누나들에게 '잘가!' 라고 인사도
해요. 말을 너무 잘해서 다 큰 형아 같아요.

기쁨이

(4세, 남)

세명이와는 놀이방에 누가 먼저
오나 하시는 라이벌관계랍니다.

정형이를 너무 좋아해(?) 정형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정형이 형도 좋아해요. 그리고 나에 형을
향해 달려 갔는데 형아가 피해 버려
벼에다 이따를 봐야 하니 나기도 해
답니다.

물장난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화장실에 들어가 해요. 하지만 작은 옷은
입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정훈

(4세, 남)

최고이고, 정형하고, 선생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친구랍니다.
하지만 가끔은 놀이방 친구들보다
훨씬 큰 괴물을 거를 수도 있어요.
그때 정형이의 방에 누워있어요.
선생님방 문을 살짝 열고 '미용!'
하며 숨어 버리는 우렁찬 장난
꾸러기예요. 요즘은 세명이,
제우와 함께 태권도, 농구
연습에 열중하고 있어요.

김아라

(5세, 여)

정형과 함께 1.

일명 오리 아줌마.

제일 어린 나이(?)에 놀이방에
들어온 이유로 다들 아줌마 토크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배설이 거리가 있거요. 조금은
어른이 연가 앞에서 단단해는데
그월이면 끝이니 연니 졸업까지
'하루하루' 연단을 마쳐야겠어요!

김진희

(5세, 여)

정형과 함께 3.

선생님과 삼촌들이 '생쥐'라고
불러요. 그 별명을 너무 좋아해
만들때마다 물으면 서슴없이
'생쥐'라고 대답해요.

물을 너무 좋아해 항상
물통 옆에 앉거요, 놀이방 물의
1등은 말을 개예요.

잠에 걸때 선생님에게
인사를 너무 잘해요.

프린트 기쁨(?) 장난거리
영미를 걱정하기도
하답니다.

유민지

(5세, 여)

정형과 함께 2.

다른 친구들이 많아서
조 별명은 다들 뭐.

병아리반 중에서 제일 열광이
강박하는 꼬맹이예요. 미끄럼틀
위에서 생애 긴 생애에 그림
그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거
모르나요?

점심시간에 제일 끝까지
남아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도련님 강한
내성때기 아가씨랍니다.

전주희

(5세, 여)

다들 친구들 (여) 3명만 정형
과 함께 3명째가만 재미있는 다
리다거요! 선생님 사랑도
잘하고 동물들도 잘 돌봐주게요.
영미가 꼬여주는 것 좋아해
무도, 머리 깎기도 화려한 만가이
아가씨예요.

놀이방에 늦게 오고, 오빠가
말해, 데리러 오는 바람에
간단 마치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속하답니다.

소공화평

(5141, 457)

둘리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100만불짜리
웃음을 선사한답니다. 어렸을때 때를 많이 썼지만
이제 형이라서 점잖아졌어요. 그런데 키가 작다고
나를 나날로 알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 속상해합니다.
낙담 시간이 되면 옛날 이야기를 꼭 듣고 나서야 잠이
드는, 잠깐대까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해는 합니다.

항택사

(5K11, 45)

눈이 커서인지 겉도, 눈물도 참 많아요. 선생님한테
아단맞거나 친구들이 싸움하러 하면 커다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다친줄이니까 많이
참습니다. 아파와는 겨냥할때만 단맛이 되는데
책상맡에서 연드려 밥먹기, 옷갈이 맡에 들어가 겨냥치기
들이 저공이에요. 그리고 하형이 맞지않는 맞진 웃음도
소유한 친구입니다.

고재원

(6H, 4g)

돌이방에 들어온 첫날부터 반생을 놀라게 하던
'하'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낯선시간에 감을 먼저
반생님이란 가장 가까이 한 이야기예요.

* 재발: 지 지반이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해볼까?

선생님: 10만원이 얼마쯤일테?

개필: 만필까지 10장이 넘!

* 자원: 지식, 개성, 리딩, 스타라, 쿼터드, 엑셀, 프라이드 ...

선생님: 와! 재워린 하이픈을
많이 아냐구나! 어떻게
알았니?

재우원: 삼촌이 알려주었어요. 전 한번
알려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놀이방에 온 처날 울지 않고 엄마에게
 안아줄 한 뼘뼘하고 눈이 동그한
 단발머리 소녀랍니다. 처음엔 너무뽀
 양친했는데 - 그래서 선생님들 속삭였는데 -
 앞머리쯤 지나가 봐야 이 드레시 나
 았고. 머는 거를 좋아해서 선생님들이
 깎아이나 정성 준비를 한대 부끄
 떼나 양친했는데 요즘은 앞머리
 사들이 없어 풍채를 자주 하답니다.

(6K11, 0A)

7620H

토티가 놀이방에서 책읽기를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지에는 선생님과, 영모, 남동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이제 읽어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가끔 언니에게 '언니는 나보다 글씨 못 읽지?' 라는 말을 해서 언니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죠. 호기심이 발동하면 글씨 읽어 어른들이 두들기고 되강가 보여요.

(6K11, 0A)

760101

두운지

(6K11, 0A)

노래, 춤, 공부...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랍니다. 키도 작고, 몸이
얇아 유서원 대안집에 대해 영감이
적당하시지만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대신요?

'신생님, 저희들 돌봐주세요라고 합니다? 좀 쉬세요'라고
이야기해 신생님을 방치해 대는 것은 아니예요

강진현

(7K4, 0A)

동생인 미현이와의 라이벌
관계이 많거나 강해요.
미현도 마찰이 많아요.
검판과 밀어낸 후 이틀째는 걸
놓아주세요. 왜냐하면 첫날 일
하곤 청산하는 것은 기분 좋게
일하게요. 김명남김영남 김철
남이 개개적으로가 김철남상 버
나갈일이 뭐냐고 물어 김영남
김철 남에게 한 과수원의
조직원(?) 습득합니다.

요즘 이글쓰기를 참 좋아해요.
기난변에 '홍람보'라고
썼는데 옛날(?)의 노람이
모습과 같 어울리죠?
하지만 요즘 많이 양전해
졌어요. 나이 한살 더 먹다보니...
그런데 토끼반 공부시간 중간에
호랑이를 한번은 꼭 가요해요.
바람요! 강변치고 시원합니다.

(6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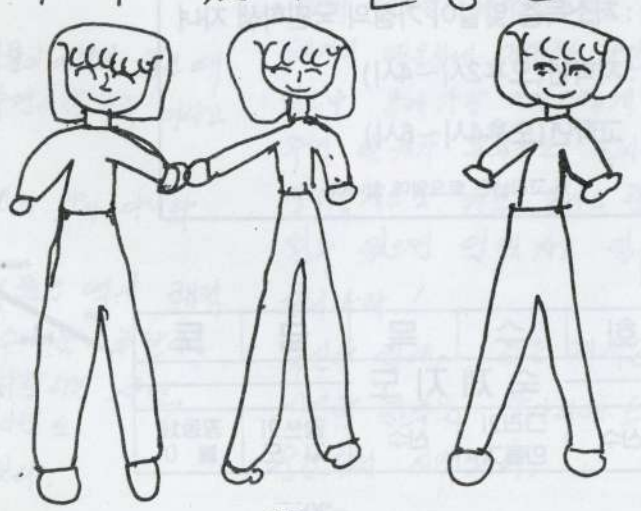
홍보강



바깥놀이

황해령 (국립교 1)

나는 바깥놀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비디오 보는 것이 좋았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지점다. 바깥놀이를 매일 갔으면 좋겠다. 공원에 가는 것도 좋고 놀이터에 가는 것도 좋다. 난 놀러가는 게 제일 재밌다. 롯데월드서울랜드 같은 데는 더욱 가고 싶다. 서울랜드는 가보았다. 공부방에서 쌍둥이 빌딩에 갔을 때 난 어디서 온 느낌이었다. 생각해 보니 유치원 때 왔다. 난 그때 유치원생 각이 났다. 선생님 생각도 났다.



화장실에서 머리 깎는다고 비누를 건드려서 물방울이 나오는데 재우를 보니 '누'를 하다가 바깥도 물리치 않은채 '영영' 울어 버린 마음이 어린 놀이 크고 영영이 하얀 아이입니다. 왜 울었냐면요, 속상해서요. 하지만 여섯 여자동생을 염마가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 좀더 바깥이 염마가 됩니다.

동종윤
(7세, 남)

매일 여섯 동생 다섯을 놀이방 가지 모쳐오는 염마가 예니 랍니다. 종윤이 못지않게 마음이 여러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큰소리로 울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울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이방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야하는 큰 염마가 울음을 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7세, 남)

정수
(7세, 여)

특히 놀이방에서 커도 가장 크고, 맑게도 가장 많이 나가는, 하지만 '똥똥하단' 말을 가장 싫어하는 - 정말로 똥똥하단 많아요 - 여장부입니다. 동생인 아리를 물게 하는 친구는 선생님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아들에게 먼저 야단을 맞아요. 아리의 시끄러움도 동생 울음소리는 잘 들리나보요. 그런데요, 아리는 아리가 제일 많이 울립니다. 아리를 틀러지겠지요?

(7세, 여)

김아름

특히 놀이방의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친구들이 커가며 염마가 대장임을 잘 안들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안점도 잘 치우고, 선생님이 부탁하신 일도 바느질까지 동생이 물어하면 닥아주 버리기까지 깨끗이 청소에주는 행하 랍니다. 그런데 집에서요, 남들이 많아 염마가 걱정하 신답니다.

1993년 1월 14일 목요일

-김정아-



오늘은 아이들이랑 연극 구경을 했다. (우리 배고 애들만)
아침 일찍 가려고 하는데...
유미만 일찍 와서 고생하고 난 대강로 파랑새극장에서 합류했다.
연극은 어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전혀안에서 대강 떠돌고 좀 질서없이 굴어서 힘들었지만...
밖에 나온 아이들은 대강 즐거워가 보다. 아이들이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지하철에서 옆에 서 있던 군인아저씨가 친구에게 하는 말.
"너 절대 애 낳지 말아라!" 우리 애들이 너무 남했나?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튼튼이 공부방 어린이 모집

▲대 상: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국민학생 자녀

▲시 간: 저학년(오후 2시~4시)

고학년(오후 4시~6시)

※ 고학년은 토요일에 쉽니다.

교육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숙제지도					
영어 한문	산수	그리기 만들기	산수	글쓰기 지도	공동체 놀이



충분한 잠을 자야...

-폭탄한 침대. 높은 베개는 남자에게 좋다.

잠은 두 종류가 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외의 잠'과 몸의 피
로 회복을 위한 '몸의 잠'이 그것이
다.
'몸의 잠' 시에는 강겨진 눈꺼풀
내에서 바쁜 안구운동이 계속되는데 이
때는 꿈이 시어라고 한다. '몸의 잠' 시
에 잠을 깨면 뇌가 활동한 흔적이 되어
있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지만
'외의 잠' 시에는 잠을 깨면 잠의 양과는
무관하게 잠을 안 잤다는 기록이 사로잡히
게 된다.

보통이 '외의 잠' 시에는 잠이 들면 예
10분 정도 구박구박 소는 알은 잠을
자면 상쾌한 효과가 있다. 서양의학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 바보가 된단
라는 말이 있었지만 자는 시간이 일면 집중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되기
기능이 높아진다.

아침에 일어나 쉬 기록이 개원지 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시간 부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쾌적
한 잠을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고
한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취하여 사는 사람으로
안장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계속 연루에 시달리며
완전히 수면부족에 리락하는 사람은
일주일 한 두번이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람이 자신의 시간은 우리집을
회하는 가벼운 운동, 즐거운 음악이나
재미 있는 대화로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

수면에 무거운 이불이나 몸에 꼭 끼는
장옷은 몸에 저항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요인을 갖추었다 해도
특정한 침대, 높은 베개는 깊은 수면을
만들한다. 특히 지나치게 특정한 침대는
몸의 무거운 부하가 심중적으로 파묻혀
현상현황에 상해가 심한 것은 책상이
구부러진 러리에 힘이 걸려 운동의
원인이 되므로 무자연스러운 체형을 유발한다.

베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몸에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주먹 한 개가 들어가는 높이가 인체
생리학적으로 가장 좋다고 한다.

원수 있으면 인생 자고 인생
알아나라!

특정한 침대, 높은 베개는 삼자다!
상당한 하루는 장자리에 드는
시간부터 시작된다.

그날 이후

과당! 육중한 남편의 몸체가 벽모서리에 가서 부딪히며 꼬꾸라졌다. 그 바람에 의자가 이슬이슬하게 거울을 비껴서 넘어진다. 방안은 온통 아수라장! 그제야 일숙은 심장이 조금 가라앉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가는 다시 생각난 듯이 남편 정갑을 노려본다.

“왜? 억울해! 난 당신한테 8년을 맞고 살았어. 나 요새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했지? 이젠 아셨을 거야.”

기가 막히다는 듯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일숙은 밖으로 나와버렸다. 상큼한 밤공기. 인간의 희로애락과는 관계없이 밤공기는 늘 자기 기분대로다. 마치 일숙의 남편처럼.

지난 몇달간 오늘을 얼마나 별러왔던가!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일숙의 기분은 그닥 시원스럽지가 못했다. 그것은 허탈감같기도 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는 원망같기도 했다.

연애시절. 정갑은 참으로 말이 없고 순한 사람이었다.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사람 하나는 정말로 좋았다. 사실 미싱사와 기사로 일하던 두 사람이 눈이 맞아 결혼하기까지 정갑은 일숙이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분고분 따라주었다. 물려받은 떡고물 하나없이 둘이 살던 월세방 보증

금을 합쳐 100에 6만원짜리 식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망정 남편의 그 치떨리는 구타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행복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딸 명애를 낳고 두어 달 쯤 됐을 때다. 갑자기 얼굴에 불이 번쩍해서 일숙은 깜짝 놀라 잠을 깼다.

“야! 하루종일 남편은 밥 벌어먹고 사느라 뺄뺄하는데 네넨은 처자빠져 자느라구 30분씩이나 소릴 질러도 문을 안 열어!” 그제야 일숙은 사태를 직감했지만 사과할 틈도 없이 남편의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피할 생각도 못한 채 어린 명애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 어느덧 제 품에 끼여 옷 입은 채로 쓰러져 잠든 남편의 몸에서 질게 풍기는 술냄새! 세상에 이럴 수가! 그제야 분을 참지 못한 일숙이 남편을 꼬집고 때리며 일으켜 보았지만 깊은 술 잠에 빠진 남편은 꿈쩍도 안했다.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남편이 일숙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미안해,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 정말 미안해. 응?”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벌고 또 비는 남편을 일숙은 끝내 차가운 얼굴로 출근시켰다.

그러던 시간이 지날수록 일숙의 마음은 남편을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말랐고 여우갈



은 계집애들 틈바구니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어. 술만 안 마셨어도 그렇게까진 안 했을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구타벽은 점점 갈수록 심해져 사소한 말다툼에서 조금만 말이 막힌다 싶으면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 들었다. 헤어질 고비를 넘긴 게 어디 한두번이겠는가? 몇번을 헤어져야겠다 결심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창피해서 남편에 말하기도 부끄러워 병어리 냉가슴 앓듯 살았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다. 여자가 얼마나 쟁알대면 남자가 매로 다스리겠다는 식이었다. 한번은 어린 시누이가 와 있을 때다. “야, 이 시궁창도 안 받아먹을 더러운냐! 내가 네 년 하나 잘못 만나 신세가 이렇게 쪼그렁 박테이가 됐어 이 년아! 네깻게 별면 얼마나 번다고 서방 앞에서 유세야 유세는?” “공장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온 것도 유세야? 신세? 누가 누구 신세 망쳤는데! 억울한 게 누구데!” 참다 못해 일숙이 한마디 내뱉자마자 정갑이 일숙을 잡아 먹을 듯 달려든다. “오빠! 오빠, 왜 이래. 그래도 오빠가 참아야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설겜이 하나 해놓지 않고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 놓은 시누이가 그러지 않아도 알미운 판인데 은근슬쩍 싸울 때마다 꼭 그렇게 오빠 편을 든다. 그러나 일숙은 퍼붓는 때를 견디내느라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고 가슴 속에는 그 웅어리들이 천겹 만겹 쌓여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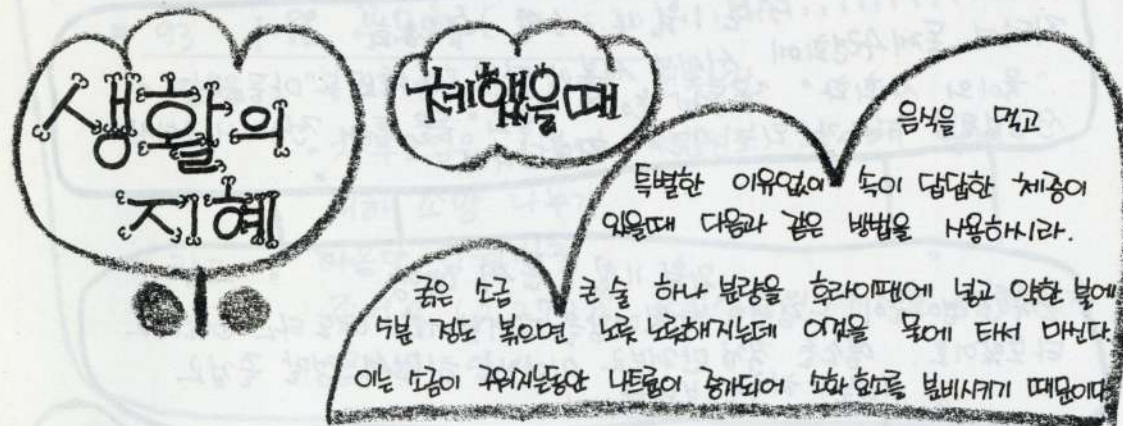
그렇게 살기를 8년! 이쯤 되자 일숙에게 슬쩍 오기가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래! 내가 왜 헤어져, 지 놈 좋으라고? 맞을 거 다 맞고 이제 와서 내가 왜 헤어져?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건 두 아이가 성격이 거칠어지고 점점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합기도장에 다니는 여자들에게 관한 TV프로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 바로 이거다!” 일숙은 즉시로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합기도장에 다녔다. 그리고 바로 오늘! 술 한잔 걸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시비를 걸자마자 그간의 실력을 발휘해 유감없이 혼썰음을 내 준 것이다.

집을 나온지 한시간쯤 됐을까? 일숙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아냐 좀 더 있다 들어가야지” 한참을 더 기다리다 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일숙이 태연한 척 방문 앞을 들어서는데, 웬걸 방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남편은 이불까지 펴놓고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부엌바닥엔 물이 흥건한 게 세수까지 했는가 보다. 일숙도 말없이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숙이 눈을 떠보니 정갑은 이미 출근해 없고 머리맡엔 편지 한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장이거나 굉장한 협박같은 것이 적혀 있겠지. 그래도 후회 안해!’ 애써 담담한 마음을 가지며 일숙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어저께 당신 얼굴은 이제껏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어. 그렇게 힘이 있는 얼굴을 보고도 왜 나는 가슴이 찡한 아픔과 연민을 당신에게 느꼈을까? 어저께야 비로소 내가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여보! 정말 미안해.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천도복숭아 많이 사올게. -못난 남편이-’

그제서야 일숙은 잊지못한 기분이 왜 감감한 절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부엌으로 향하는 일숙의 몸이 날 듯이 가벼웠다. ♣



활동 일지

* 10월 11일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

국민대에서 있었던 이날 행사에는 엄마뿐 아니라 많은 아바도 함께 참여해 훨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로지역 엄마들의 노래극 및 각지역 엄마들의 공연과 아바들의 미니 올림픽도 보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었어요.

* 10월 25일 애플장터 *

월동비 마련을 위한 애플장터를 하는 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고생은 되었지만, 겨울 내내 아무 걱정없이 지낼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아바·이모·삼촌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 11월 7일 공동 임원 모임 *

구로지역 6개 탁아소 자모임원들이 모여서 "자모회의 활성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탁아소 엄마들의 친목도 다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어요.

* 12월 24일 산타 선물 *

키크고 안경숙 산타할아버지가 친구들 집을 다녀가셨대요.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났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추운 날씨 탓에 힘이 드셨대요. 하지만 내년에도 잊지 말고 꼭 주세요.

93년 1월 4~6일 춘명회

지택연 동계수련회에 선생님 세분이 다녀 댔어요. "아동교육" "육아의 사회화" "공동체 놀이" "총회" 등을 통해 전국에서 모이신 선생님들랑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2월 11일 눈썰매장

토끼반 형아들이 드림랜드 눈썰매장을 다녀왔어요. 배도 타고 눈썰매도 타보았어요. 영소를 직접 만져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답니다.

부모회 일지

■ 10월 부모회 (92.10.14)

- △ 안건 : 애플장터를 위한 준비 (임시 자모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헌옷정리 담당 · 당일날 9전 · 오후반 당번 정하기.
- △ 광고 : 장터에 필요한 물품 가져오기
10월 부모회는 애플장터로 대체하기로 함.

■ 11월 부모회 (92.12.4)

- △ 교육 : 올바른 선거에 관하여 (강사 - 김혜진님)
- △ 안건 : 재물잔치 준비
음식 장만하기
- △ 광고 : 산타선물 준비
김장김치는 당번제로 가져오기

■ 12월 부모회 (92.12.26)

- △ 재물잔치 및 송년회
1부 - 재물잔치
2부 - 가족노래 자랑 및 모범가족상 시상

■ '93 1월 부모회 (93.1.30)

- △ 안건 : 부모회를 자모회를 전환건
- 자부모임은 1년에 4번정도 행사에 참여
새해 소망 나누기
- △ 광고 : 다음달 임원선출
졸업식 (2.27) 및 졸업생들의 유치원 입학문제
공부방 안내



살림살이

수입

항목	92 9월	10월	11월	12월	93 1월
보육료	1,090,000	1,280,000	1,320,000	1,290,000	1,400,000
후원금	235,400	205,400	205,400	205,400	189,360
후원회비	55,000	40,000	40,000	35,000	45,000
기타수입	18,559	7,000		10,395	
총계	1,398,959	1,532,400	1,565,400	1,540,795	1,634,360

지출

항목	92 9월	10월	11월	12월	93 1월
주·부식비	165,180	219,930	215,120	179,670	170,300
간식비	169,260	86,480	152,170	186,120	59,200
교육비	20,000	49,100	46,500	7,000	103,800
사업비	20,000	51,400	50,000	96,500	33,800
활동비	104,500	32,500		5,700	180,000
인쇄·통신비	2,480	22,700	3,620	2,300	
행사비		12,000		67,200	
인건비	780,000	780,000	780,000	780,000	900,000
유생비	7,400	10,670	6,800	13,700	10,400
소모품비					5,650
비품·시설비	8,600	27,000			
광열비	9,200		9,200	9,200	
공과금	13,330	5,000	48,975	15,000	
잡비	30,600	29,480	3,500	2,400	14,800
퇴직충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총계	1,410,550	1,446,160	1,395,885	1,444,790	1,559,950

소식란

● 월동비 마련을 위한 안동 장터는 해서 남은 수익금과 달력 판매를 하여 남은 수익금으로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수익사업에 도움을 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1월 21일 (토)에 놀이방 김명신 선생님이 결혼하셨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전에 열하셨던 고선영 선생님이 둘째아이를 낳으셨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래요. 축하드려요.

◆ 놀이방 재정에 도움은 주시는 분들입니다.
- 권미화님·김영심님·박영선님
안경자님·정원태님·장달수님
윤의철님 이외에 최은지
이진우·유수정·강지현
부모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놀이방에 자원 활동 나가는 아롱시미·빛그늘 이모·삼촌께 감사드립니다

◆ 연대 애포레팀이 사정 이 생겨서 자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놀이방 졸업식이 2월 27일 (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은 이진우·송종윤·최은지·유수정·강지현·김아름·최현 모두 7명입니다.

◆ 작년 10월부터 김숙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늘었지만 인사드립니다.

◆ 토끼반 송종윤이 오빠가 되었어요. 새로 예쁜 여동생이 태어났거든요. ...



졸업을 맞이하면서

- ◆ 이제 몇일만 있으면 수정이가 놀이방을 졸업한다.
낙원교회 건물에 있을때 민지는 업고 수정이는 걸리고 시간
늦었다고 재촉하는 엄마를 따라 돌백리에 걸려 많을때는 두번씩
넘어지면서 겨울을 싫다는 만 한마디 없이 열심히도 뛰어다녔다...
과연 어렵것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도움없이 책을 줄줄 읽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가슴 뻑뻑하다. 모든것이 열심히 노력하며 사랑으로 감사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로 드린다.

- 이인재 (수정엄마)

- ◆ 아름이를 놀이방에 보냈지도 벌써 3년이 다가오는군요.
이제는 집에서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주면 울면서 놀이방에
간다고 야단이에요. 놀이방에 다니면서 언제부터인가 엄마보다는
선생님을, 집보다는 놀이방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아름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신 선생님과 이모. 삼촌
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조민숙 (아름엄마)

- ◆ 은지가 놀이방에 다닌지도 벌써 3년. 졸업을 앞두고 나니
지난날 은기때문에 웃고 울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납니다.
놀이방에 적응하는데 한달이나 걸렸던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보다도 선생님을 더 따르게 되었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 혼자서도 밥을 볼수있다고 아주 큰아이처럼 말하지요
티없이 맑고 개뽕하게 자란 우리 놀이방 아이들...
아마 유치원에 가서도 잘 적응하리라 믿어요.

저 또한 놀이방의 엄마들과 서로의 고민이 있으면 툭 털어놓고
마음으로 주곤받던 지난3년 정말 잊을수가 없을거예요.
선생님. 이모.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공부방에서 자주 뵈겠습니다.

- 김금자 (은지엄마)

- ◆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 2년.

아침이면 지현이가 "엄마, 일어나세요!" 하면서 깨워준다.
하루도 바바람없이 내집처럼 드나들던 놀이방을 이제 졸업하게
되었다. 어느 간식시간 아이들이 먹던 음식도 아무 스스럼 없이
먹던 선생님의 모습. 정성껏 돈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린다. 놀이방에서 자란 아이들, 이 다음 커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하며, 놀이방에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으로 커가길 빈다.

- 조종녀 (지현엄마)



특·특·이·어·린·아·집

- ◆ 구로지역에 위치한 비영리 택아소로
일터에 나간 엄마·아빠의 가슴앓이를
함께 나누고자 우리네 아이들을 보호·
교육합니다.

- 보육시간: 오전 8시 ~ 오후 7시 (토요일은 6시)
- 아동연령: 24개월 ~ 만 5세

- ◆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 정기회원: 매월 정하신 금액을 보내주세요.
- 특별회원: 장난감, 동화책, 주방·가정용품 등 택아소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영리적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 자원봉사자: 항상 열심이 부탁드립니다.
함께 알아볼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소식을 잘 받아 보실 수 있어요.
택아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언제든지 택아소를 방문하실 수 있어요.



한일은행 115-194895-02-001 유익순 서울택아은행 34107-89021117 유익순
국민은행 804-24-0185-150 유익순 효흥은행 306-6-166488 유익순